

# 직관처럼 짜릿한 ‘집관’... 프로야구 랜선응원 ‘후끈’

IT·이통3사, 온라인 중계 서비스  
네이버 하이라이트 등 영상 다채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함께 응원

SKT 12개 시점 관람 ‘5GX 직관’  
KT ‘시즌’서 실시간 중계·채팅  
LGU+ 경기장 줌인, 포지션 영상

‘2020 시즌 한국 프로야구(KBO)’가 5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관중으로 시작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가 집에서도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랜선(온라인) 응원’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알리기에 한창이다.

실제 경기장에서의 응원이 불가능해 온라인 시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떤 플랫폼이 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일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이동통신3사가 프로야구 중계에 힘을 쏟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스포츠에서 경기 중계와 함께 인기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인터뷰 영상, 역대 개막전 영상 등을 제



SK텔레콤은 2020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5일부터 시작되는 SK와이번스의 개막 3연전을 웨이브의 ‘5GX 직관야구’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SK텔레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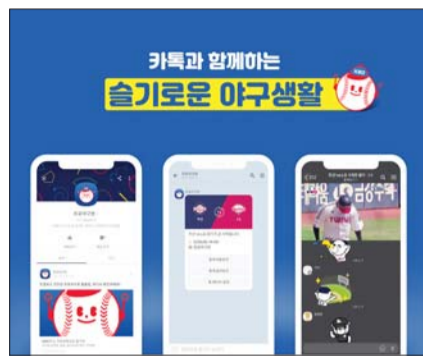
공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자체 제작한 영상을 통해 구단과 선수별로 골라볼 수 있도록 했다.

‘여러분이 모시고 싶은 시구자는?’, ‘경기만 볼 수 있다면 이 경기는 꼭 보겠다’ 등의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야구 일정과 결과, KBO리그 개막전 시구자 정보,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는 챗봇과 오픈채팅을 활용해 시청자들이 경기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

을 느낄 수 있는 ‘슬기로운 야구생활’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용자가 ‘프로야구’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후 응원하는 팀과 닉네임을 정하고, 생중계 시작을 ON으로 설정해두면 경기가 열릴 때마다 메시지로 알려준다.

사용자는 생중계 화면 아래에서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대화를 즐길 수 있다. 지난달 21일 두산과 LG의 연습경기에 테스트한 결과, 약 2000명이 34만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카카오는 챗봇과 오픈채팅을 활용해 시청자들이 경기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제공하기 위한 ‘슬기로운 야구생활’ 캠페인을 진행한다. /카카오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경쟁도 뜨겁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시작되는 SK와이번스의 개막 3연전을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의 ‘5GX 직관야구’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시청자는 ▲기본 중계 화면 ▲전광판 화면 ▲투수·타자 클로즈업 화면 ▲투구·타격 분석 화면 ▲치어리더 직캠 ▲선수별 직캠 등 경기장의 다양한 모습을 최대 12개의 시점으로 관람할 수 있다.

KT는 OTT서비스 ‘시즌’을 통해 ‘프로야구 Live’를 선보인다. 이용자는 시즌에서 생중계 경기를 보면서 타 이용

자들과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으며, 타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프로야구 전용 앱인 ‘U+프로야구’를 통해 기존 ▲KBO 경기 5개 실시간 동시 시청 ▲포지션별 영상 ▲주요 장면 다시보기 ▲경기장 줌인 ▲홈 필착영상 등과 더불어 ‘방구석 응원’ 최적화 기능인 실시간 채팅, 게임을 추가해 선보인다.

아프리카TV에서는 여러 진행자들의 편파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BJ ‘캐스터안’과 ‘소대수캐스터’는 각각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편파 중계를 진행하고,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안지만과 테디윤(윤동현)도 방송을 진행한다.

경기장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네이버가 중계한 5개 경기의 온라인 중계 누적 시청자 수는 평균 57만6958명으로 나타났다. KBO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시즌 평균 네이버 온라인 중계 시청자 수는 21만7000명이었다. 두 배가 훌쩍 넘는 265%의 증가를 기록한 수치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두산인프라코어, 中서 대형굴착기 잇단 수주

중국 시장 회복세... 총 20대 수주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형 굴착기를 연이어 판매하며 시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중국 북서부 칭하이와 북부 내이멍구, 동부 산시 지역에서 총 20대의 대형 굴착기를 잇달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4월 중순 칭하이 하이시 일대에서 광산 채굴용 장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에 80톤 굴착기(DX800LC-9C) 5대와 50톤 굴착기(DX520LC-9C) 1대 등 대형 굴착기 총 6대를 판매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우수한 연비와 효율적인 작업 성능을 갖춘 제품, 현지 대리상의 신속한 서비스 대응 역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과 일본의 경쟁사를 제쳤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대형 기종 수주로 칭하이 광산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칭하이 지역



두산인프라코어 DX800LC.

에서 1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전체 시장점유율 7.3% (2019년 기준)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내이멍구에서도 같은 달 광산 및 인프라 공사용 장비 임대업체가 80톤 굴착기를 3대 구매했으며, 이보다 앞서 산시에서는 건설업 고객사가 49톤 굴착기(DX490LC-9C) 6대, 45톤 굴착기(DX450LC-9C) 2대, 36톤 굴착기(DX360LC-9C) 3대 등 총 11대를 구매했다.

80톤 초대형 굴착기인 DX800LC 모델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최신 기술을 집

약한 플래그십 기종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대형 기종의 판매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건설기계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2월 침체됐으나, 3월부터 반등하며 빠르게 회복 중이다. 3월 중국 굴착기 시장규모는 4만6201대로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중국 굴착기 판매 규모가 지난해 20만대 수준에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코로나 이후 中시장 핵심은 ‘H.O.M.E.’”

코트라 유망 분야 키워드 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현지시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KOTRA(코트라)가 5일 ‘포스트코로나19 중국 유망 상품, 유망 서비스’ 보고

서를 통해 새로운 중국 비즈니스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 개발과 서비스 진출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코트라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면 비즈니스가 중심이 된 ‘언택트 경제’ ▲모바일·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경제’ ▲기업 경쟁과 생태계 재편이 가속화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

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트라는 향후 중국 유망분야 키워드를 ‘H.O.M.E.’로 제시했다. ▲건강·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로 떠오른 ‘헬스케어(Healthcare)’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된 ‘온라인(Online)’ ▲방역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무인화(Manless)’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홈코노미(Economy at Home)’가 미래시장을 예측하는 열쇠다. /양성운 기자

## LGU+, ‘5G 단독모드’ 상용망 테스트 완료

LG유플러스는 5G 단독모드(SA) 표준을 기반으로 상용망에서 5G 서비스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5G 네트워크는 LTE망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5G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5G 단독모드가 상용화되면 서비스별 최적의 품질 보장 제공, 통신 지연 시간 최소화, 단말 전력 소모 개선 등이 가능해 가상현실(VR),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5G 차세대서비스에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지역 5G 상용망

의 기지국 장비와 신호패킷 처리 코어 장비의 연동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인 아리아텍·텔코웨어와 LG유플러스가 공동 개발한 5G 가입자 정보 관리 장비 및 네트워크슬라이싱 관련 장비까지 연동했다.

LG유플러스는 5G SA 표준 기반의 가입자 인증, 데이터 송수신, 기지국 장비 지역 간 이동 등 5G SA 상용을 위한 필수 검증 항목에 대해 상용망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혼밥에 딱”... 삼성 1구형 포터블 인덕션

‘더 플레이트’ 출시... 25만원

삼성전자가 6일 포터블 인덕션 ‘더 플레이트’ 1구 모델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더 플레이트는 별도 설치가 필요없고 이동이 간편한 포터블 인덕션이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밀레니얼 소비자들에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최근 ‘집콕족’ 증가로 월 평균 40% 가량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모델은 기존 2구 모델보다 작은 사이즈로, 협소한 주방 공간이나 혼밥을 하는 1인 가구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은 ▲화력을 1~10단계로 섬세하게 조절하거나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다이얼과 ▲잔열 경고 표시, 과열 방지, 어린이 안전 장치, 자동 팬 인지와 같은 유용한 안전 기능을 대거 적용했다.

아울러 일체감 있게 디자인된 전용



용기(웍)가 함께 출시된다. 인덕션 본체에 고정되는 구조로 조리 중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아 안전하며, 용기 앞부분에는 조리된 음식을 타지 않게 보온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삼성 더 플레이트 1구 모델은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25만원이다. 전용 용기는 출고가 10만원으로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더 플레이트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0’, 미국 ‘CES 2020 혁신상’ 등을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